

『東醫壽世保元』甲午本과 辛丑本을 통한 少陰人 黃疸에 대한 考察

함통일 · 황민우 · 김상복 · 이수경 · 송일병 · 고병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Conception about Soeumin Hwangdal(jaundice, 黃疸) between 'Dongyi Soose Bowon,' 'GaboBon' and 'SinchukBon'

Ham Tong-Il, Hwang Min-Woo, Kim Sang-Bok, Lee Soo-Kyung, Song Il-Byung, Koh Byung-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change of Dong-Mu's concepts about Soeumin Hwangdal(jaundice; 黃疸).

2. Methods

This study was researched as bibliographically with Dong-Mu's writings such as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GaboBon'),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SinchukBon')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conception of Soeumin Hwangdal(jaundice, 黃疸) is a syndrome of indigestion, which needs releasing excessive yin qi through the method of descending the interior yin.
- 2) In the course of Taeum syndrome(太陰病), Soeumin Hwangdal(jaundice, 黃疸) locates between Biman(bloating, 痞滿) and Bujong(edema, 浮腫) on the point of view of Healthy Energy.
- 3) In 『SinchukBon』, Soeumin interior disease is divided two syndroms. The one is the syndrome that has diarrhea as major symptom, and the another is the syndrome that has bloating as major symptom.
- 4) In 『SinchukBon』, Dong-Mu suggested that diuresis is an important treatment of the syndrome which has bloating as major symptom.

Key Words : soeumin, hwangdal(jaundice), interior disease, GaboBon, SinchukB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 序 論

黃疸은 주로 피부와 공막에 황색의 색소침착으로 나타난다. 한의학적으로 黃疸은 溫疫病에서도 나타나고 傷寒病에서도 나타나는 데 『東醫寶鑑』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濕熱로 보고 黃疸, 酒疸, 穀疸, 女勞疸, 黃汗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

다¹⁾. 『東醫壽世保元』에서 黃疸은 주로 少陰人 裏病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少陰人 裏病篇에서 말하는 黃疸은 寒邪와 正氣의 세력다툼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염증증상과 피로증상의 누적을 표현한다²⁾.

『威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 발견된 후 『東醫壽世保元』의 病證 및 處方에 대해 辛丑

• 접수일 2005년 6월 21일 승인일 2005년 8월 11일
• 교신저자 : 고병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3 Fax: +82-2-958-9234
E-mail: Kmc2516@khmc.or.kr

1) 許浚 著. 동의보감편찬위원회 역. 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1345.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2004: 231.

Table 1. A Classification of the Soeumin Interior Disease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 written in 1894(GaboBon)

太 陰 病		少 陰 病	
痞滿을 중심으로 하는 太陰病	太陰病 黃疸	太陰病 陰毒證	
張仲景 太陰病 自利腹痛, 瀉心湯證, 傷寒發黃, 水結胸, 寒實結胸			張仲景 少陰病, 藏厥, 陰盛隔陽, 下利清水, 乾霍亂關格病
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食物塞滯而一二三日內 新氣添積漸得快健則終能變革消化 下利之證也.	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塞滯而歷三四日至五六七日 新氣雖則添積新不快健 終不變革消化 下利之證也.	少陰人食滯下利表氣陰寒之證. 半下半滯日久不解而變爲此證也.	少陰人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冷氣內侵 下利不止之證也.
處方 已上諸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理中湯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桂附藿陳理中湯. 腹滿不減 減不足言 身黃小便不利腹微滿 汗出劑頸而還 此二證 有積滯也 當用 巴豆丹 下利二度 因以薑朮破積湯 香砂養胃湯 和解之.	此證 當用 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瘧疽丸 又當用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此證 當用 獨參附子理中湯.	若口燥心煩下利腹脹滿則 當用 桂附藿陳理中湯 獨參附子理中湯. 兼身體痛疼謔語則 當用 芎歸葱蘇理中湯 獨參蘇葉理中湯. 若口燥心煩腹脹便閉 或下利青水腹痛便澀則 當用 巴豆丹 繼之以他藥.

본만으로 해석하기 힘들었던 여러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중 病證論에 관한 연구로는 이 등³⁾의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과 한 등⁴⁾의 甲午本 病證論 分析이 있었고 甲午本과 辛丑本에 대한 비교연구는 임 등⁵⁾의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대한 비교 考察, 임 등⁶⁾의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판본에 따른 전반적인 病理構造에 대한 비교연구였으며 개별 病證에 대한 비교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少陰人 裏病에서 판본에 따라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黃疸에 대해 甲午本과 辛丑本을 비교하여 두 판본 사이에서의 東武 李濟馬 선생의 인식변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에서의 少陰人 裏病의 전반적 구조

-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병증론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 49-61
-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판본에 따른 병증 개념의 변화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26-33.

1)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의 少陰人 裏病의 전반적 구조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 少陰人 裏病篇을 「少陰人內觸胃病論」으로 부르며 外感과 內傷(內觸)으로 表裏病을 구분하고 腹背表裏와 偏小·偏大之臟에 따라 表裏之表裏病으로 구분하였다. 裏病의 기전에 대해 大腸과 胃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크게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2대 분류하였다. 그 중 太陰病은 張仲景의 太陰病 自利腹痛과 心下痞를 主證으로 하는 瀉心湯證, 傷寒發黃, 水結胸, 寒實結胸 등을 太陰病이라는 하나의 병증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黃疸를 太陰病의 表裏俱病으로, 陰毒證을 풀리지 않고 오래된 太陰病의 변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少陰病을 제시하고 藏厥, 下利清水, 陰盛隔陽, 乾霍亂關格病을 예로 들고 있다. 甲午本의 특징적인 점은 少陰人의 裏病이 모두 下利之證을 주요 증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리기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보이며 「少陰人腎胃病篇尾泛論」의 太陰病과 少陰病은 모두 自利形證이다⁷⁾라는 서술과 六大病證의 비교 서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⁸⁾(Table 1 참조).

-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腎胃病篇尾泛論」: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一也而 渴不渴之間 相去遠甚而 冷氣之聚散輕重 雲夢之比滿澤也"
-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腎胃病篇尾泛

Table 2. A Classification of the Soeurin Interior Disease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 published in 1901(SinchukBon)

太 陰 病		少 陰 病
太 陰 病	太陰病 陰毒證	
範疇	張仲景 太陰病 自利腹痛, 瀉心湯證, 傷寒發黃, 水結胸, 寒實結胸, 乾霍亂關格病, 藏結, 黃疸	張仲景 少陰病, 藏厥, 陰盛隔陽
病因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少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黃疸)痞滿 黃疸 浮腫 同出一證 而有輕重	腹痛下利 則病必盡解也而腹痛 下利 而其病 半解半不解者 陰 毒之漸也
處方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黃疸) 論曰 右證 當用 桂枝半夏生薑湯 赤白何烏寬中湯 三物白散 或用 巴豆丹 然 痞滿 黃疸 浮腫 同出一證 而有輕重 若欲利小便 則乾薑 良薑 陳皮 青皮 香附子 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2)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의 少陰人 裏病的 전반적 구조

辛丑本에서 少陰人 裏病을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의 발생기전을 少陰人 이 脾小한 특징을 지니므로 항상 脾陽이 부족하여 陰化 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升陽하는 기운이 부족하여 생긴 陰實之氣의 輕重에 따라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분류하고 있다.

辛丑本에서 病證의 전반적인 구조는 甲午本과 비슷하지만 편제의 순서 및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甲午本에서 少陰病 서술 앞에 위치하였던 寒實結胸, 水結胸, 黃疸 등이 辛丑本에서는 少陰病 서술 뒤로 자리하고 있으며, 甲午本에서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乾霍亂關格病 治驗例가 少陰病 서술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편제 순서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제시를 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언급하기로 한다(Table 2 참조).

2. 黃疸에 대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の 비교

論: "...通滯下利則病必解也而 通滯下利而病益甚者 少陰病也...腹痛下利則 病必盡解也而 腹痛下利而其病半解半不解者 陰毒之漸也...食滯一下而 病即解者 太陰之輕病也...食滯三日 不能化下者 太陰之尤病也...食滯六日 不能化下者 太陽太陰之胃家實 黃疸病也"

1) 病理構造를 통해 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에서의 黃疸 비교

甲午本에서는 太陰病의 病理기전에 대하여 膈腹部의 大腸으로 下達하는 胃氣가 虛弱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⁹⁾. 이에 비하여 黃疸은 처음에는 太陰大腸으로 내려가는 胃氣가 冷氣를 물리쳐 내지 못하였다가 太陽膀胱之氣 또 한 通快하지 못하고 凝結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다¹⁰⁾고 하여 裏部에서 病이 발생한 太陰病에서 증상이 진행된 表裏俱病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黃疸은 일반적인 太陰病과는 차이가 있는 病證으로 시작이 되는 원인과 시작부위는 같지만 病의 진행과정에서 表部의 생리적 조건까지 손상을 입은 表裏俱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辛丑本에서는 太陰病 泄瀉는 大腸의 泄瀉로 溫氣가 冷氣를 몰아내는 病證으로 설명하였고¹¹⁾ 黃疸에 대해 따로 病理기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陰黃은 곧 少陰人 病이다¹²⁾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少陰人의

9)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下達膈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塞滯而一二三日內 新氣添積漸得快健則 終能變革消化 下利之證也”
10)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太陰病 腹滿食不下而表氣壅遏之病 始發於太陰大腸之胃氣 不能逐冷氣而 太陽膀胱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黃疸”
11)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의 不足으로 인하여 飲食善化라는 完實無病의 조건에 영향을 끼친 病證으로, 간접적으로 朱震亨의 글¹³⁾에서 인용된 食積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太陰病은 身體痛과 骨節痛의 表證이 없으므로 裏가 病든 것일 뿐 表는 病들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며¹⁴⁾ 痞滿과 黃疸, 浮腫은 같은 病因에서 생긴 證으로 다만 輕重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⁵⁾. 즉, 痞滿과 같은 病因으로 裏病에서 출발하는 黃疸이 甲午本에서처럼 病의 진행상 表部의 생리적 조건에까지 영향이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2) 處方을 통해 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에서의 黃疸 비교

處方에 있어 甲午本에서는 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瘴疸丸,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을 제시하고 있으며¹⁶⁾ 辛丑本에서는 茵陳橘皮湯, 茵陳附子湯, 茵陳四逆湯, 瘴疸丸, 巴豆丹을 제시하고 있다¹⁷⁾. 이 중 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瘴疸丸의 경우에는 두 판본 모두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제외하면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처방은 辛丑本에서는 乾霍亂關格病 治驗例과 食消의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며,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두 治驗例은 모두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넘어오면서 개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조문이다. 甲午本에서 두 處方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桂附藿陳理中湯은 주로 少陰病의 범주

에서 제시 되고 있으나 心下痞滿을 중심으로 한 太陰病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⁸⁾. 芎歸葱蘇理中湯은 「少陰人內觸胃病論」 내에서 少陰病의 兼身體痛疼證語¹⁹⁾, 臟厥과 陰盛隔陽²⁰⁾, 下利清水²¹⁾에서 인용되고 있다. 즉 위의 두 處方은 甲午本에서 少陰病의 범주를 다스리는 보다 강한 裏陰降氣를 위한 處方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방의 용례를 통해 볼 때 甲午本 내에서의 黃疸은 기본적으로는 太陰病의 범주에 속하여 臍腹으로 下達하는 胃氣虛弱을 기본으로 하는 表裏俱病에 속하며 처방의 사용에 있어서는 일부 분 강한 裏陰降氣의 작용이 필요 할 수 있는 병증이며 그것의 달성을 위하여 少陰病의 用藥과 비슷한 부분이 필요함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辛丑本에서는 역대이가의 處方을 그대로 인용하고 裏陰降氣의 방법으로 利小便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寬中湯이라는 새로운 處方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黃疸에 대해 甲午本에서는 일반적인 太陰病에서 진행된 表裏俱病으로 痞滿을 主證으로 하는 일반적인 太陰病보다 더욱 강한 裏陰降氣의 수단이 필요한 病證이라는 인식으로부터 辛丑本에서는 새로운 裏陰降氣의 수단에 대한 고안과 함께 痞滿을 主證으로 하는 太陰病과 함께 처리 될 수 있는 病證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諸家 醫論에 대한 東武선생의 견해를 통해 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에서의 黃疸 비교

甲午本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여러 醫論 중에서 熱家の 黃疸, 利小便을 해야 할 黃疸과 女勞의

12)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論曰 陰黃 卽少陰人病也”
 13)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朱震亨曰 黃疸 因食積者 下其食積 其餘 但利小便 小便利白 其黃自退”
 14)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太陰病 無身體骨節痛表證 此則裏病 表不病”
 15)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痞滿 黃疸 浮腫 同出一證 而有輕重”
 16)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此證 當用 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瘴疸丸 又當用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17)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論曰 右證 當用 茵陳橘皮湯 茵陳附子湯 茵陳四逆湯 瘴疸丸 或用 巴豆丹”

18)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塞滯而一二三日內 新氣添積漸得快健則 終能變革消化 下利之證也...已上諸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理中湯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桂附藿陳理中湯”
 19)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兼身體痛疼證語則 當用 芎歸葱蘇理中湯 獨參蘇葉理中湯”
 20)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今考更定 朱肱所論藏厥 以心躁而論之也 少陰病最重證也...此證 當用 桂附藿陳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21)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下利清水者 雖日一二行 口中必益燥乾而冷氣內侵也 當用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以制陰寒 可也”

黃疸은 모두 少陽人의 黃疸이지만 이 문구를 삭제하면 문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여 둔 것이니 참고하라²²⁾고 설명하였으나 辛丑本에서는 陰黃은 곧 少陰人 病으로 자신이 熱家의 黃疸, 利小便 시켜야 할 黃疸, 女勞의 黃疸을 경험하지 못하여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세 가지 黃疸은 혹 少陰人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²³⁾고 언급하고 있다.

辛丑本에서는 위의 내용에 이어서 少陰人과 少陽人의 利小便之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甲午本 저술 당시에는 黃疸에 대해 少陰人의 경우는 利小便시켜야하는 黃疸은 少陰人病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간의 경험 이후에 辛丑本을 저술하면서 소음인 裏病의 裏陰降氣의 수단으로 利小便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에 黃疸과 더 진행된 浮腫에 까지 쓰이는 寬中湯을 창방하는 동기가 된다. 즉 少陰人의 黃疸에 利小便이 裏陰降氣의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을 통해 본 少陰人 裏病에 있어서 黃疸의 범주

甲午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에서 少陽人 上消는 少陰人 太陰病과, 少陽人 中消는 少陰人 黃疸과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음²⁴⁾을 언급하며 黃疸은 원래 少陰人病으로 少陽人 黃疸은 中消의 범주에 해당하는 病으로, 消渴은 원래 少陽人病으로 少陰人 食消는 陰黃의 범주에 해당하는 病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또한 辛丑本에서는 역대 醫家들이 언급한 陰黃은 少陰人病으로 痞

滿, 黃疸, 浮腫이 같은 病因에서 생긴 證으로 다만 輕重의 차이만이 있을 뿐²⁶⁾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少陰人 黃疸은 陰黃과 食消를 포함하는 病證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食消에 대한 언급은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넘어오며 개초 되지 않았던 「少陰人泛論」에서 보이는 데, 病程상 末期에 浮腫이 나타나는 病證으로 浮腫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芎歸葱蘇理中湯을 處方으로 제시하고 있다²⁷⁾.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少陰人 黃疸은 傷寒이나 內傷에서 發黃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病證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 이상으로 인하여 完實無病 조건인 飲食善化에 이상이 생겨난 陰實之氣의 降陰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病證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병증군에는 食積으로 인한 陰黃과 함께 食消와 浮腫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少陰人 太陰病의 진행과정 상에서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의 상태가 太陰病의 痞滿과 浮腫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少陰人泛論」 食消의 處方으로 芎歸葱蘇理中湯 대신 寬中湯의 사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 사이의 少陰人 裏病篇 편제 차이에 대한 小考

辛丑本에서 病證의 전반적인 病證의 구도는 甲午本과 비슷하지만 편제의 순서 및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甲午本에서 少陰病 서술 앞에 위치하였던 寒實結胸, 水結胸, 黃疸 등이 辛丑本에서는 少陰病 서술 뒤로 자리하고 있으며, 甲午本에서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乾霍亂關格病 治驗例가 少陰病 서술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크게 보면 太陰病, 少陰病, 太陰病의 순서로 기술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太陰病의 일부와 少陰病을 포함하는

22)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已上諸證 諸家論中 熱家之黃 利小便之黃 女勞之黃 皆少陽人黃疸病也而 刪削之則 文脈不成 故並錄之 觀者詳之”

23)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論曰 陰黃 卽少陰人病也 當用朱氏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女勞之黃 熱家之黃 利小便之黃 想或非少陰人病 而余所經驗 未嘗一遇黃疸 而治之故 未得仔細裏許”

24)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膈胃病篇尾泛論」: “少陽少陰人病 以陰陽正對而論之則...上消與太陰證 相對也 中消與黃疸 相對也”

25)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膈胃病篇尾泛論」: “黃疸 元是少陰人病而 少陽人黃疸亦有之. 少陽人黃疸 卽中消之屬也 消渴 元是少陽人病而 少陰人食消亦有之. 少陰人食消 卽陰黃之屬也”

26)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論曰 陰黃 卽少陰人病也...然 痞滿 黃疸 浮腫 同出一證 而有輕重”

27)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泛論」: “嘗見 少陰人 飲食倍常 口味甚甘 不過一月 其人 浮腫而死 少陰人 食消 卽浮腫之屬 而危證也 不可不急治 當用 芎歸葱蘇理中湯”

Table 3. Comparison of Formation about Soeumin Interior Disease between 'Dongyi Soose Bowon,' 'GaboBon' and 'SinchukBon'

甲午本			辛丑本		
少陰人 內觸 胃病論	太陰病	張仲景 太陰病	太陰病	泄瀉를 중심 으로 하는 病證	少陰人胃 受寒表寒 病論
		瀉心湯證			
		傷寒發黃			
		水結胸·寒實結胸			
		黃疸			
	陰毒證				
	少陰病	張仲景 少陰病	少陰病	痞滿을 중심 으로 하는 病證	
		臑厥·陰盛隔陽			
		乾霍亂關格病 治驗例			
	傷寒發黃	太陰病	痞滿을 중심 으로 하는 病證		
水結胸·寒實結胸					
臑結					
黃疸(浮腫)					

少陰人 膈胃病論 尾泛論	臑結
--------------------	----

泄瀉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病證과 水結胸, 寒實結胸, 臑結, 黃疸를 포함하는 泄瀉보다는 痞滿을 중심으로 하는 病證의 순서로 서술되고 있다 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甲午本에서는 모든 病證의 病理를 설명하며 下利之證임을 언급하고 있다(Table 1. 참고). 이러한 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辛丑本으로 넘어 오면서 개초되지 않은 「少陰人泛論」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²⁸⁾. 물론 이것만으로 東武先生께서 甲午本 저술 당시에 少陰人 裏病이 모두 泄瀉를 기본으로 하는 病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甲午本과 辛丑本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인 大便에 대한 기술의 비중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甲午本에서는 大便 상태에 대한 기술이 많고 그것을 중요하게 언급 했는데 辛丑本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삭제가 된다. 예를 들어 甲午本에서는 下利清水와 下利清穀을 少陰病과 太陰病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²⁹⁾ 비하여 辛丑本

에서는 이 내용이 빠진 게 된다. 이는 大便의 양상을 통해 病證을 분석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保命之主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의 중요성을 얻어낸 결과인 동시에 기존 甲午本과는 달리 少陰人 裏病은 크게 泄瀉를 중심으로 하는 病證과 泄瀉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痞滿을 중심으로 하는 病證으로 나눌 수 있음을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泄瀉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병증에는 裏陰降氣의 수단으로 利小便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Table 3. 참고).

물론 현재까지 甲午本과 辛丑本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두 판본 이외에 단서를 제시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없었으며 본고의 논지 또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진다.

III. 結 論

少陰人 裏病의 黃疸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8) 각주 8, 9) 참고

29)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少陰人內觸胃病論」: “下利清穀者 雖日數十行 口中必不燥乾而冷氣外解也 當用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以助溫煖好也 下利清水者 雖日一二行 口中必益燥乾而冷氣內侵也 當用 芎藭葱蘇理中湯 桂附霍陳理中湯 以制陰寒可也”

1. 少陰人 黃疸는 傷寒이나 內傷에서 發黃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病證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 이상으로 인하여 完實無病 조건인 飲食善化에 이상이 발생하여 陰實之氣의 降陰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病證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太陰病의 진행과정 상에서 陽煖之氣의 상태가 太陰病의 痞滿과 浮腫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黃疸에 대해 甲午本에서는 일반적인 太陰病에서 진행된 表裏俱病으로 痞滿을 主證으로 하는 일반적인 太陰病보다 더욱 강한 裏陰降氣의 수단이 필요한 病證이라는 인식하였으나 辛丑本에서는 裏陰降氣를 위한 방법으로서 利小便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寬中湯을 고안하였으며 痞滿을 主證으로 하는 太陰病과 함께 포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病證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甲午本과 辛丑本의 편제 차이는 少陰人 裏病은 크게 泄瀉를 중심으로 하는 病證과 泄瀉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痞滿을 중심으로 하는 病證으로 나눌 수 있음을 얻어낸 결과이며 泄瀉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병증에는 裏陰降氣의 수단으로 利小便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IV.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사상체질의학회. 2001.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사상체질의학회간행. 대성문화사, 서울, 1998.
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
4. 許浚 著. 동의보감편찬위원회 역. 對譯 東醫寶鑑. 범인문화사, 서울, 1999: 1345.
5. 이진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병증론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9-61.
6.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1):34-50.
7.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8.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판본에 따른 병증 개념의 변화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 26-33.